

# 전북도 외환 활성화 '맞손' 잡다

### 전북은행, 무역·무역보험공사·전북신보와 협약 체결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10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전북신보보증재단(이사장 유우유),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지사장 김중성),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지역본부장 박준우)와 전북 외환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 협약 체결을 통해 전북은행은 도내 소재 수출입 기업에게 외환 업무에 대한 금융지원을 한다. 이 지원으로 도내 수출입 기업은 전북은행을 통해 해외 송금 환율 우대, 신용장 개설·인수 및 통지 수수료 할인, 수출환어음 매입 우대 등 수출부담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 받게 된다. 또한 전북은행과 거래하는 혁신성장 기업들은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

보증 서비스를,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처한 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를 각각 제공받게 된다.

아울러 수출 유망 중소기업은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무역금융 보증 상품을 적극 지원받는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입기업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과 고객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협약 참여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도내 수출입 업체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 10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 한국무역협회의 전북지역본부와 전북 외환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 전북은행, 신청자격 조회 서비스 운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지난 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희망적금 신청자격 조회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연계적립식 상품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금융 소득종합과세 비대상자가 해당된다.

이번 운영하는 서비스는 전북은행 영업점 또는 JB뱅크 앱을 통해 JB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여부를 사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는 사전조회 신청일로부터 최대 3영업일 이내에 알릴 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JB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4개월, 월 불입액 최소 1,000원부터 최대 월 50만 원까지 가능한 자유정액식 정기적금 상품으로 오는 22일부터 가입 가능하다. 기본이자 연 5.0%에 우대금리 최고 0.2%를 더해 최고 연 5.2% 금리를 제공하며, 우대금리는 JB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자동이체로 11회 입금 시 적용된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과 최대 36만 원의 정부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JB청년희망적금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

### 불법 소각 예방·단속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장현)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취약지 및 산불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예방 및 집중단속 활동을 연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인 농업 잔재물 소각 행위 및 인산자 신탄화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산화물 또는 신탄과 인접한 사업장 내 모닥불 피우기, 취사행위, 흡연행위 금지 홍보방송 송출까지 함께 실시한다.

특히, 건조한 봄철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무인 항공 드론을 띄워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과 건조특보가 발효된 지역 위주로 집중 감시 순찰 할 계획이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2022년은 대선 및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통계적으로 다른 해보다 산불 발생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9일(미국 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의회가 김치의 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 美 버지니아주 '김치의 날' 제정 통과

###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미국 내 2번째 김치의 날 제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미국 동부지역인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현지시간 지난 9일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처리됐다고 10일 밝혔다.

김치의 날(11월 22일)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국내에서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첫 미국판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번 버지니아주 확산으로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미국 전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제정 결의안은 버지니아주 아린 신(Irene Shin)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마크 김(Mark L. Kim), 마커스 사이먼(Marcus Simon) 하원의원 등이

동참했다. 결의문에는 미국에서 김치의 인기, 김치의 역사, 건강식품으로서 김치의 우수성과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했으며, 유네스코에서 김치 준비 및 보존 과정인 한국의 '김장'을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점을 반영해 매년 11월 22일을 버지니아주 '김치의 날'로 제정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주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통과 현장과 이를 기념하는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11월에는 뉴욕을 찾아 한인회 주요 인사들과 함께 '뉴욕주 김치의 날 제정' 추진을 선언하는 등 미 서부에서 시작된 미국 주류 내 김치의 날 제정이 중·동부지역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해 왔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아린 신 의원은 "이번 김치의 날 제정에 적극 협조해 준 한인 커뮤니티와 공사에 감사하다"며 "결의안 제정을 계기로 김치를 비롯한 보다 많은 한국 식품이 미국 사회에 전파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춘진 사장은 "김치의 날 제정에 이숙영 주미대사의 도움이 컸다"며 "공사는 김치 수출 확대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주에 이어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등 미 전역으로 김치의 날 제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미국 내 김치 붐을 지속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비 김치 수출은 2020년 대비 22.5%가 증가한 2,825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10년 전인 2011년 279만 달러와 비교하면 10배 가량 성장했다. /최대희 기자

## '관상용 꽃사과 키워보실래요?' | 농진청, '하나벨' 등 모목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정원이나 길가에 심어 꽃과 열매를 감상할 수 있는 관상용 꽃사과 품종의 확대 보급에 나섰다.

10일 농진청에 따르면 꽃사과는 먹는 용도가 아닌 관상용이나 조경용으로 이용되는 야생종 사과나무를 말한다. 수종으로는 사과나무(Malus spp)에 속하며 지름 5cm 미만의 과실을 맺는다. 이와 같은 조경용 원예 품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11년부터 관상용으로 심을 수 있는 사과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보급하는 꽃사과 품종은 야생 수집 종을 활용해 2020년 개발하고 2021년 품종 출원을 마친 '하나벨'이다. 특징으로는 달콤하고 상쾌한 향기를 풍기고 풍성한 흰 꽃을 해마다 피운다. 꽃향기의 주요 성분은 꿀벌을 유인하는 물질인 벤zil아세트



꽃사과 '하나벨'

이트로 이 물질은 화장품 향료로 쓰일 만큼 향이 뛰어나다. 이 품종의 모목은 사과 모목을 생산하는 주산지 중 모 업체 11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보급된 사과 관상용 품

종 중에서는 분홍색 겹꽃이 아름다운 '로즈벨'(2011년 개발)과 황금빛 작은 열매를 감상할 수 있는 '골든벨'(2011년 개발)을 구매할 수 있다. '로즈벨'은 기존 품종과 다르게 분홍색 꽃잎이 여러 장 겹쳐진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피운다. 이어서 '골든벨'은 지름 2~3cm 정도의 작고 동그란 열매를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맺는다. 기존 두가지 품종도 사과 주산지 중 모 업체 14곳, 16곳에 각각 기술 이전했다. 모목은 나무를 심기 한 해 전 종묘업체에 예약해 구매할 수 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이동희 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겠다"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먹는 사과와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최대희 기자

## 도내 18개 농축협 우수사무소 선정

### 전국 대비 선정비율 19.6%로 전국 1위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2021년 상호금융대상 평가에서 전북지역 18개 농·축협이 우수사무소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상호금융대상은 2008년부터 농협중앙회가 전국 1,118개 농·축협의 상호금융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최고 영예의 상으로, 올해로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전북농협은 총 92개 농·축협 중 19.6%에 해당하는 18개소가 우수사무소에 선정돼, 전국 도지역 농·축협 수 대비 우수사무소 선정 비율 1위에 등극하는 기쁨을 토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북지역 18개 농·축협의 상호금융대상 수상은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전북농협 상호금융 명가(名家)' 도약을 위한 임직원의 노력과 농업인 조합원, 고객, 지역주민의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전북농협은 농·축협이 지역대표 금융

기관으로서 최고의 금융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업인 실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수사무소에 선정된 도내 농·축협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2개소)= 남원원예농협(조합장 김용현), 이서농협(조합장 송영욱)

▲우수상(5개소)= 고산농협(조합장 국영식), 순창농협(조합장 선재식), 운봉농협(조합장 서영교), 전주원예농협(조합장 김우철), 흥덕농협(조합장 백영중)

▲우수상(11개소)=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 동계농협(조합장 양준섭), 심례농협(조합장 강신학), 삼골농협(조합장 하수종), 소양농협(조합장 유해광), 신탄인농협(조합장 김성주),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심재진), 익산원예농협(조합장 김봉화), 전북지리산농협(조합장 이연기), 정음원예농협(조합장 이대진), 태안농협(조합장 한상근) /최대희 기자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가 10일 전주시 도도동과, 완주IC 인근 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복, 긴스 등을 전달하며 관계자를 격려했다.

##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 AI 방역현장 방문

### 완주IC 인근 거점소독시설 찾아 방역복 등 전달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송혁)가 10일 전주시 도도동과, 완주IC 인근 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복, 긴스 등을 전달하며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한파 속에서 AI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방역활동에 힘쓰는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방역 근무자

들에게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혁 지부장은 "한파 속에서도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에 매진하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행정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전주시·완주군이 AI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전북농협은 임실축협에 상호금융 대출금 1000억원 달성탑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전북농협 제공)

## 코로나19 장기화 인한 경기침체에도 '성과'

### 임실축협, 상호금융 대출금 1000억원 달성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임실축협(조합장 한득수)에 상호금융 대출금 1,000억원 달성탑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직접 임실축협을 방문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상호금융 대출금 달성탑'은 지역농축협의 건전 경영과 내실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금융

여건 속에서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금융환경 속에서 건전영진 추진에 힘써준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금융산업 규제개혁, 비대면화 가속,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협의 건전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대희 기자